

국어학의 언어학적 방법*

연구사적 이해를 중심으로

정 광
(고려대학교)

1. 들어가기

한국어의 연구, 즉 한국어학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통 넓은 의미로 한국어학은 한국어의 언어 과학적 연구라고 정의될 것이다. 그러나 몇몇 연구자들은 한국어학이란 서양언어학의 연구방법에 의거하여 한국어를 연구하는 것으로 좁게 정의하기도 한다. 후자의 관점이라면 한국어의 연구는 서양의 언어연구 방법이 도입된 개화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한국어의 연구사, 즉 국어학사는 이 시대부터 기술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연구는 고영근(1985)을 들 수 있다.¹⁾

반면에 넓은 의미의 한국어학을 인정하는 연구자들은 한국어의 연구가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부터 과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연구는 이승녕(1956)을 들 수 있고 이에 의거하여 많은 한국어의 연구사, 즉 국어학사가 서술되었다.²⁾ 예를 들면 유창균의 <국어학사>(1959)

【Keywords】 Korean linguistics, Korean alphabetic system, Letters, Semiotics, Autosegmental phonology

* 이 논문은 2003년 6월 21일에 열린 국제언어인문학회 2003 학술대회(고려대학교 국제관 멀티미디어실)에서 구두로 발표한 것이다.

- 1) 고영근의 <국어학 연구사>(1985)에서는 국어학의 형성기를 ‘갑오경장으로부터 국권 상실까지의 15년간’으로 보고 이 시기(1884~1910)를 대한제국 시대의 국어연구라 하여 서양의 전통문법이 들어와서 국어를 연구하기 시작한 甲午更張 이후의 국어 연구로부터 국어학은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와 그 후의 개정판 및 유창균·강신항의 <국어학사>(1961), 강신항의 <국어학사>(1971), 김석득의 <우리말 연구사>(1983) 등이 이러한 연구사의 서술 태도에 입각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홍기문의 <정음발달사>(1946)와 방중현의 <훈민정음통사>(1948)를 본격적인 국어학사의 연구로 간주하여 진정한 의미의 한국어 연구사는 이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어학사는 전통적인 언어학사의 서술 방식에 따라 고대인들의 언어의식이나 표기의식 등을 연구사에 포함 시켜 역사 이후의 언어연구를 시대적으로 정리하는 국어학사의 서술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서술된 국어학사는 김윤경의 <조선문자급어학사>(1983)를 위시하여 김민수의 <신국어학사>(1964) 등이 있다. 특히 북한 학자들의 국어학사는 한결 같이 훈민정음 이전의 국어연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대표적인 국어학사 연구자인 김병제의 <조선어학사>(1984)는 제 1편을 '고대로부터 14세기말까지의 조선말과 서사체계의 발생발전과정'이란 제목을 붙여 14세기말, 즉 훈민정음 창제 이전까지의 국어 연구를 언급하였는데, 주로 고대시대의 삼국, 즉 고구려·백제·신라의 언어관계와 차자표기의 변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역시 북한의 대표적인 국어학자 김영향도 그의 <조선언어학사연구>(1996)에서 제1장을 14세기 이전의 언어연구에 할애하면서 '모국어에 대한 인식과 언어관', 그리고 '<삼국유사>에 반영된 언어학 유산'이란 제목으로 고대인들의 언어관과 한자 차자표기 방법에 대하여 논술한 것을 국어학사에 포함하였다.³⁾

2) <思想界>(34~41호)에 연재된 이승녕 선생의 '국어학사'에서는 "國語學史는 文字制定(훈민정음 제정) 이후에 제기된 言語에 대한 새로운 認識과 각 학자의 業績을 연구하여 하나의 연구사를 엮는 학문이다"라고 정의하여 훈민정음 창제를 위한 우리말과 한자음, 중국어 발음의 연구가 한국어학의 시발점임을 강조하였다.

3) 1980년 말에는 훈민정음 창제로부터 국어학사가 시작된다고 보는 견해가 북한에서도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김일성종합대학의 조선어학과 교재로 간행된 <조선언어학사>(1989)에서는 제1장이 '15-6세기 우리나라의 언어학'이란 제목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역시 '선행시기의 언어학 유산'이란 소제를 붙여 훈민정음 이전의 차자 표기 방법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남한의 국어학사 서술방법에 이끔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한국어학, 즉 한국어의 연구는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위에서 세 가지 유형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우선 첫째는 고대인들의 언어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우리말의 한자 차자 표기의 방법을 개발하면서 한국어에 대하여 고찰한 것도 한국어학에 넣는 방법이고 둘째로는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하여 당시의 우리말과 그 이전의 우리 한자음에 대하여 면밀하고 과학적으로 검토한 15세기 중엽의 우리말 연구부터 본격적인 한국어학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대부분의 한국어학사의 기술 태도가 후자를 따르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마지막 셋째로는 서양의 언어학, 적어도 서양의 전통문법 연구 방법이 수입되어 이를 통하여 한국어가 연구된 이후부터 진정한 의미의 한국어학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는 일부 급진적인 주장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양에서 ‘언어과학(linguistic science)’이 정립된 것은 19세기에 유럽에서 언어의 역사비교연구가 있는 다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양 언어학사는 고대희랍의 언어연구, 특히 음성형식과 의미내용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하여 철학적인 연구방법으로 穿鑿했던 고대 희랍 철학자들의 언어 연구에서 서양언어학의 淵源을 찾는다. 예를 들면 언어학사로서 서양에서 가장 일반화된 영국 런던대학 Robins 교수의 <언어학 小史(A Short History of Linguistics)>(1967, First published)에서는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을 고대 희랍인의 언어연구로 채웠다.

그러나 언어학사의 서술에서 서양문화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거나 백인 우월 의식에서 서술하는 태도에 비하여 조금 중도적인 덴마크의 Vilhelm L. P. Thomsen 교수는 그의 <언어학사(Sprogvidenskabens historie, En kofattet fremstilling af dens hovedpunkter)>(1902년에 집필된 논문을 1919년에 전집으로 간행하면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음)에서 고대 인도인의 언어 연구, 특히 베다(veda) 經典의 梵語 연구를 서양언어학의 嚆矢로 보았다. Thomsen 교수는 이 책에서 언어학의 연원을 聖書에서 구하고 이어서 고대 인도인들의 산스크리트어 연구, 특히 파아니니의 연구가 인류의 언어 연구사에서 지금까지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았다.

Thomsen과 더불어 중도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는 세르보-크로아티아에 있는 노비 사드(Novi Sad)대학의 Milka Ivič 교수가 쓴 <언어학의 흐름(영어 번역: *Trends in Linguistics*)>(1965)을 들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고대희랍의 언어연구에 이어 비록 짧지만 한 장을 할애하여 인도문법학파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제국으로부터 르네상스까지, 그리고 르네상스로부터 18세기 말까지를 고전적인 언어연구라고 하였으며 본격적인 언어학사는 19세기의 역사비교 언어학 이후로부터 서술하였다.

서양의 언어학사 가운데는 언어과학이 정립된 19세기 이후의 언어 연구만을 기술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예를 들면 유명한 Pedersen의 <19세기 언어과학(*Linguistic Science in the Nineteenth Century*)>(1931)이나 Helbig의 <현대언어학사(*Geschichte der neueren Sprachwissenschaft*)>(1970)에서는 19세기 역사비교언어학 이후의 언어 연구만을 언어학사에서 거론하였다. 특히 Helbig(1970)에서는 F. de Saussure 이후의 언어연구만을 시대적으로 서술하여 ‘현대언어학사(*Geschichte der neueren Sprachwissenschaft*)’의 현대가 de Saussure 이후임을 말하고 있다. 역사비교언어학의 언어 연구 방법도 이 책에서는 이미 고전적인 것으로 처리되어 서론에서 몇 페이지로 언급되었을 뿐이다.

그러면 현대 언어연구에서 전시대의 연구방법이나 경향은 무시되어도 좋은가? 언어학사에 대한 지식은 일고의 가치도 없단 말인가? 본고에서는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2. 현대 언어연구에 있어서 연구사적 지식의 필요성

인류의 모든 발명은 전시대의 연구가 축적되어 이룩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독창적이고 전례가 없다고 인식되었지만 실은 그 발명의 배경에는 전시대의 연구가 숨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영명하신 세종대왕이 세상에 유례가 없는 새로운 글자를 창제하셨다”로 알려진 훈민정음의 창제도 중국 元 世祖 至元 6년(1269)에 공포된 八思巴

문자의 제정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원의 쿠빌라이칸(忽必烈汗, 후일 元世祖)은 吐蕃에 遠征했을 때에 그곳의 喇嘛僧 八思巴를 잡아 捕虜로 데려와 한자의 발음을 표기할 수 있고 몽고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문자를 제정하게 하였다. 八思巴는 당시 표음문자였던 티벳 문자의 자획을 증감하고 글자 모습을 개정하여 41개의 몽고신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파스파(八思巴) 문자로서 元世祖는 이 문자를 至元 6년(1269)에 반포하여 몽고인 학자들로 하여금 이 문자로 한자의 발음을 기록한 <蒙古字韻>등의 韻書를 짓게 하고 실제로 몽고어를 기록하게 하였다(羅常培·蔡美彪:1959). 그는 전래하는 몽고 畏兀 문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이 문자를 ‘蒙古篆字’라 명명하고 皇帝의 모든 詔勅을 이 문자로 작성하여 먼저 쓰고 다음에 한문으로 풀이하게 하였다(졸저:2002/271~2).

이러한 파스파문자의 제정과 사용은 훈민정음 그것과 사정이 매우 유사하다. 예를 들어 파스파 문자로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마련한 朱宗文의 <蒙古字韻>에 수록된 중국 전통적인 36자모의 파스파자 표음과 <四聲通解>의 卷頭に 부재되어 중국어 발음 표기를 위하여 훈민정음으로 36자모를 표음한 ‘廣韻三十六字母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蒙古字韻의 36자모표>

	牙音	舌頭音	舌上音	脣重音	脣輕音	齒頭音	正齒音	喉音	半舌音	半齒音
全清	見 ㄱ	端 ㄷ	知 ㄷ	幫 ㄱ	非 ㄴ	精 ㄷ	照 ㄷ	影 ㄷ		
次清	溪 ㄱ	透 ㄷ	徹 ㄷ	滂 ㄷ	敷 ㄷ	清 ㄷ	穿 ㄷ	曉 ㄷ		
不禱不屬	疑 ㄱ	泥 ㄷ	娘 ㄷ	明 ㄷ	微 ㄷ			喻 ㄷ	來 ㄷ	日 ㄷ
全濁	群 ㄱ	定 ㄷ	澄 ㄷ	並 ㄷ	奉 ㄷ	從 ㄷ	床 ㄷ	群 ㄷ		
全清						心 ㄷ	審 ㄷ	(心)		
全濁						邪 ㄷ	禪 ㄷ			

<四聲通解> 소재의 廣韻三十六字母之圖⁴⁾

	牙音	舌頭音	舌上音	房音	齒音	齒頭音	喉音	舌音	半舌音	半齒音
全清	見ㄱ	端ㄷ	智ㄷ	精ㄱ	非ㄸ	精ㄱ	照ㄱ	影ㅇ		
次清	溪ㅋ	透ㅌ	徹ㅌ	滂ㅍ	敷ㅍ	清ㅊ	穿ㅊ	曉ㅎ		
不清不濁	疑ㅇ	泥ㄴ	娘ㄴ	明ㅁ	微ㅁ			喻ㅇ	來ㄹ	日ㄷ
全濁	群ㄱ	定ㄷ	澄ㄷ	並ㅍ	奉ㅍ	從ㅍ	床ㄷ	匣ㅇ		
全清						心ㅍ	審ㅍ			
全濁						邪ㅍ	禪ㅍ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은 고려 후기부터 한반도에서 학습한 바 있고 또 元의 事大文書를 읽기 위하여 고려인들이 학습하던 八思巴 문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蒙古韻略> 등 八思巴 문자로 한자음이 표기된 운서의 서명이 <四聲通解> 등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에는 八思巴 문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元代 八思巴 문자의 발명과 그 사용은 훈민정음 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실제로 훈민정음 창제 이후 이 문자로 발음을 전사한 <東國正韻>에서는 23자모를 인정하여 한자음의 표음에는 23개 자음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훈민정음에서는 고대국어의 한자음에 존재하는 17개 초성(자음)과 교정 한자음의 全濁音을 표시하기 위하여 만든 雙書字 6개를 합친 23개의 자모를 만들었는데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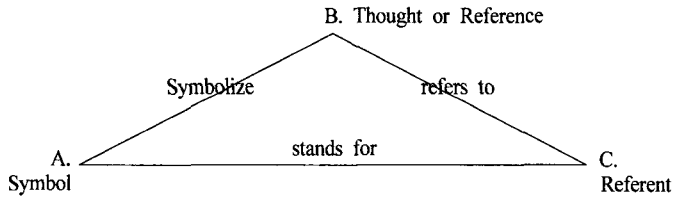
<東國正韻 23字母表>

	牙音	舌頭音	舌上音	房音	齒音	齒頭音	喉音	舌音	半舌音	半齒音
全清	ㄱ(君)	ㄷ(斗)	ㄷ(驚)	ㄱ(卽)	ㅇ(搨)					
次清	ㅋ(快)	ㅌ(吞)	ㅌ(漂)	ㅊ(侵)	ㅎ(虛)					
全濁	ㄱ(虬)	ㄷ(罩)	ㅍ(步)	ㅍ(慈)	ㅇ(洪)					
不清不濁	ㅇ(業)	ㄴ(那)	ㅁ(彌)		ㅇ(欲)	ㄹ(閭)	ㄷ(穰)			
全清				ㅍ(戌)						
全濁				ㅍ(邪)						

4) 실제로 현전하는 어떠한 <廣韻>에도 이러한 36字母圖가 부재되지 않았다.

현대 언어학의 이해에서도 언어학사적 지식은 매우 유용하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에 의미론에서 유행하였던 ‘기호의 三角理論(semiotic triangle)’은 중세시대 사변문법가들의 언어에 대한 三次元的인 이해에서 그 이론적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즉 Ogden & Richards(1923)에서는 기호(symbol)와 지시물(referent), 그리고 사고 또는 지시(thought or reference)와의 관계를 삼각형으로 표현하였다.

흔히 이들은 ‘name, sense, thing’의 三次元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Ogden과 Richards에 의하면 ‘記號’는 언어적 요소, 즉 낱말이나 문장이고 ‘指示物’은 경험세계 속의 사물인데 반하여 ‘思考 또는 指示’는 개념으로서 언어의 의미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들의 상호 관계에 대하여 그들은 사물(지시물)과 개념(사고 또는 지시) 사이에는 ‘지시하는(refers to)’ 관계에 있으며 개념과 기호, 즉 언어와의 관계는 ‘상징한다(symbolize)’고 보아서 다음과 같은 의미의 三角形을 그렸다.



여기서 A는 언어적 표현의 낱말이나 문장이고 B는 그의 concept(概念)이며 C는 표현의 의미적 object(대응물)이다. 그들은 A와 C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계가 없으며 그 연계는 B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즉 지시물은 사고와 지시를 거쳐야 언어의 의미가 되는 것을 밝히면서 기호와 대응물 사이에는 단지 대신하는(stands for) 관계만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생각은 중세시대에 진리의 존재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려던 名目論(nominalism)이나 반대로 일반적 개념의 존재를 주장하는 實在論(realism), 또는 개념론(conceptualism)의 논의를 불러일으킨 思辨文法學派(speculative grammarian)의 樣態論的 해석과 관련이 있다. 사변문법가들은 外在하는 진리

가 인간에 의해 理解되는 방법을 중시하고 그 파악의 방법, 즉 樣態(modus)의 고찰에 중점을 두었다. 이 이론에 의거하면 진리는 다음 세 차원에서 고찰된다.⁵⁾

modi essendi(存在의 樣態)- 존재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선형적인 존재다. 사물은 인간의 경험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⁶⁾

modi intelligendi(理解의 樣態)-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이해 능력에 의한 것이다. 여기서 존재의 이해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언어의 차원에서만이 具體化된다.

modi significandi(言語의 樣態)- 사물의 인지하는 경험적 이해는 언어로 표시되고 그것이 의미를 형성한다.⁷⁾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심리가 사물로부터 존재의 양태(modi essendi)를 추상하며 또 그들을 이해의 양태(modi intelligendi)로 받아들이고 언어는 이러한 추상성을 언어의 양태(modi significandi)라는 수단으로 意思疏通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많은 사변문법가들의 논문이 “De modis significandi(On the modes of signifying -의미의 양태에 대하여-)”라는 표제를 내건 것처럼 양태론자들이 가장 중요시한 것은 언어의 차원이었고 이해의 양태나 존재의 양태는 언어 차원의 投影으로 밖에 보지 않았다.

여기서 존재의 양태는 Ogden & Richards(1923)에서 지사물(referent)이라는

5) 이러한 주장은 Siger de Courtrai(1300, A.D.)와 Thomas of Erfurt(1350, A.D.)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St. Thomas Aquinas에 의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의 ‘moderate realism(소극적 실재론)’에 근거한다.

6) 존재의 양태는 本質性(modus entis)과 存在性(modus esse)을 本性으로 한다. 즉 본질성은 사물이 가진 시간적인 永續性과 存續의 본성을 말하고 존재성은 존속하는 사물의 시간적인 변화와 계기의 본성을 말한다.

7) 인간의 지식에서 普遍은 具體的 事象의 現實의 特性에서 抽象化되어 그것과는 분리된 인간 정신에 의하여 고찰된다. 樣態論者(modistae)들은 정신이 事物로부터 존재의 양태(modi essendi)를 추상하고 그것들은 이해의 양태(modi intelligendi)로 고찰하며 언어는 이러한 抽象物을 언어의 양태(modi significandi)로 전달하는 것으로 보았다.

것이고 또 이해의 양태는 사고 또는 지시(thought or reference)에 해당되며 언어의 양태가 바로 기호(symbol)인 것이다. 따라서 名目論이나 概念論 이전에 양태론자들이 사물의 인식과 언어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호의 三角理論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사변문법가들이 가졌던 언어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단순화시킨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같은 예를 변형생성문법의 이론을 제창한 미국의 Chomsky 언어학에서 들 수 있다. 초기 변형문법은 역시 서양의 중세시대에 유행했던 프랑스의 Port Royal학파의 언어연구에서 그 原型을 찾을 수 있다. 이 학파의 핵심적인 저서인 Arnauld & Lancelot(1660)에서는 관계대명사를 설명하면서 Chomsky 변형문법의 기본개념인 심층구조와 표면구조를 구별하였다. Arnauld & Lancelot(1660)에 의하면 주어 또는 술어 등 여러 낱말에 의하여 합성되어 문장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몇 개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수효만큼 命題(propositions)가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만일 “Dieu invisible a créé la monde visible(The invisible God has created the visible world)”라는 문장이 있을 때에 이 문장을 작성한 사람은 세 가지 판단이 포함되었다. 즉 첫째 ‘Dieu est invisible’, 둘째 ‘il a créé le monde’, 셋째 ‘le monde est visible’의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 각각은 하나씩의 명제를 갖고 있다

이 세 개의 명제 가운데 둘째의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이 명제를 母型文으로 하여 첫째와 셋째를 내포, 또는 삽입한 것처럼 결합시킨 것으로 본 것이다. 첫째와 셋째는 둘째에 종속된 것으로 첫째는 주요명제의 주어를, 셋째는 술어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들 挿入命題들은 위에 든 예와 같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확실하게 겹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관계대명사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Dieu qui est visible a créé le monde qui est visible(God who is invisible has created the world which is visible)”는 세 개의 명제를 겹으로 보여주는 문장이 되었고 이것이 관계대명사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변형생성문법의 기본개념인 심층구조와 표면구조의 구별을

가져온 것으로 Chomsky(1966)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이론이 Port Royal학파의 연구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위의 인용문을 예로 하여 심층구조에서 표면구조로의 導出, 또는 현재화하는 과정에서 生成 및 變形의 원리를 인정하게 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Port Royal학파가 모든 언어의 基底에 있을 것이라는 普遍的인 언어 특징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으로부터 후대에 일반문법을 낳게 되었고 이것이 후일 Hjelmslev에 접목된 것이며 또 이것이 Chomsky에 의하여 20세기에 재현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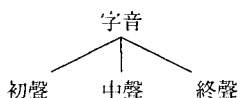
3. 한국어 연구에서 서양 언어학 방법의 의미

위에서 새로운 언어이론은 언어학사적 조명에 의해서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제는 한국어의 연구에서 서양 언어학의 연구방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대부분의 한국어학사가 훈민정음 창제를 위하여 15세기 중엽에 이루어진 우리말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았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訓民正音 창제를 위한 한국어의 연구를 언어 과학적 연구로 인정한 때문이다.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서울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언어연구가 있었으며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이 발명된 것으로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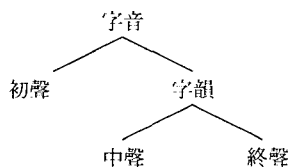
그러면 과연 이 시대의 언어연구는 얼마나 과학적이었는가? 예를 훈민정음의 中聲字, 즉 모음자의 制字 原理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먼저 훈민정음 제작자들은 중국 聲韻學에서 漢字 한 자의 발음을 한 음절로 이해하고 각 음절을 聲과 韻으로 나눈 二分法에서 한 걸음 나아가 初聲·中聲·終聲의 三分法을 시도하였다. 例義를 만든 세종은 初聲 = 終聲으로 이들은 자음을 말하는 것이고 中聲은 모음으로 이해하였다.⁸⁾ 그러나 이 例義를 해설한 <訓民正

8) 우리가 <解例本訓民正音>으로 알고 있는 <原本訓民正音>의 解例는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를 비롯하여 初聲, 中聲, 終聲, 그리고 合字의 해설(解)을 보인 것으로 크게 御製序文과 例義 그리고 解例와 정인지의 後序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御製序文과 例義는 세종의 親製이며 解例는 例義에대한 集賢殿 학자들의 敷衍 설

音>의 해례를 집필한 사람들은 초성과 중성이 동일하지 않음을 직시하고 이들을 음절 구조상에 계층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즉 예의에서는 “終聲復用初聲”으로 초성=중성으로 이해하였지만 解例 ‘중성해’에서는 “八終聲可足用”이라 하여 終聲의 위치에서는 8개의 자음만 음가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중화됨으로 초성≠중성으로 이해하였다. 이것을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例義의 음절 인식>



<解例의 음절 인식>9

그리하여 훈민정음에서는 모음의 기본자 3개를 天(圓), 地(平), 人(立)의 三才를 본따서 만들고 이어서 이들을 결합하여 初出字 4개, 그리고 再出字 4개를 만들어 모두 11개의 중성자를 제정하였다. 여기서 초출자는 기본자가 한번씩 결합하여 만든 것이고 재출자는 天(圓)을 두 번씩 결합하여 만든 ‘ㄱ, ㅋ, ㆁ, ㆅ’ 등의 문자를 말한 것으로 解例에서는 1계 이중모음임을 밝혀 현대 음운론보다 훨씬 앞선 이론으로 이 각각을 설명하였다.

우선 기본자 3개는 전설, 중설, 후설에서 각기 하나씩을 만들어 중설과 후설에서 전후의 대립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즉 전설 고모음의 [i]와 중설 중모음의 [a], 그리고 후설저모음의 [a]를 기본음으로 인정하고 이 각각에 天·地·人 三才를 象形한 기본자 /·, 一, | /를 만들어 대응시킨 것이다.¹⁰⁾ 그

명으로 본다.

9) <訓民正音> 「解例」의 ‘終聲解’와 「諺文字母」에서는 8개의 子音만이 終聲에 올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ㄱ에서 들면 “ㄱ 君字初發聲, ㄱ 卽字終聲”(「解例」 初聲解, 終聲解), “ㄱ 其役(기역)”(「諺文字母」 初聲終聲通用八字)으로 초성과 중성의 두 예를 보였으나 ㅋ은 “ㅋ 快字初發聲”, “ㅋ 箕(亦取本字之譚俚語爲聲)(「해례」 초성해, 「언문자모」 初聲獨用八字)에서는 초성으로 쓰인 예를 하나만 들고 중성으로 쓰인 예는 제시하지 않아서 중성으로 사용이 불가능함을 말하였다.

리고 이어서 후설(·同)의 /ㄱ, ㄷ/와 /ㄴ, ㄹ/의 4개를, 그리고 중설(一同)의 /ㄷ, ㄹ/, /ㅌ, ㄴ/의 4개를 만들었다. 다만 재출자 /ㄴ, ㄹ, ㅌ, ㄴ/는 “起於 1”라고 하여 1계 이중모음임을 분명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모음들은 양모음 계열(으, 오, 아, 요, 야)과 음모음 계열(으, 우, 어, 유, 여)로 나뉘어 ‘으~으, 오~우, 아~어, 요~유, 야~여’가 서로 후설대 전설로 대립하고 있으며 ‘ㅣ’음은 이러한 전후의 대립 체계에서 무관함을 지적하였다. 즉 졸고(2002)에서는 훈민정음의 중성자들을 河圖의 生位成數之圖에 의거하여 각각이 陰陽, 五行, 方位로 서로 대립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 중성자들이 서로 대립적으로 존재함을 체계적으로 증명하였다.

즉 ‘으~으’는 生位成數之圖에 의하면 ‘으’는 ‘天五’의 成數이고 ‘으’는 ‘地十’의 數이어서 河圖에서 방위로는 ‘南 : 北’으로 대립하고, 陰陽과 五行에서는 ‘天 : 地’, ‘陰 : 陽’으로 대립하여 다른 4쌍의 대립, 즉 ‘오~우, 아~어, 요~유, 야~여’의 대립을 선도하고 있다. 이어서 ‘오~우’의 대립은 위의 生位成數之圖에 의하면 ‘오’가 ‘天一’의 生位로서 五行으로는 ‘水’이고 八卦로는 ‘乾’이모 ‘우’는 ‘地二’의 生位로서 五行으로는 ‘火’이고 八卦로는 ‘坤’이다. 따라서 ‘오~우’는 五行에서 ‘水 : 火’의 대립이며 八卦에서는 ‘乾 : 坤’의 대립이다. 같은 방법으로 ‘아~어’의 대립은 五行과 八卦가 ‘木 : 金’, ‘巽 : 震’의 대립으로 보았는데 이것을 졸고(2002)에서는 ‘으~으, 오~우, 아~어, 요~유, 야~여’가 서로 대립적으로 존재함을 이런 방법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았다. 당시로서는 이 음운의 대립을 이런 방법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또 당시의 한자음에는 ‘으, 오, 아, 요, 야’의 陽계열, 즉 후설모음과 ‘으, 우, 어, 유, 여’의 陰계열, 즉 전설모음이 서로 상관을 이루면서 존재함을 말한 것으로 보았다. 훈민정음에서 이와 같이 음운을 대립적으로 인식하고 체

10) 훈민정음 중성 기본자 /으, 으, 이/의 음가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여러 異論들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훈민정음>에서 언급한 “聲淺·舌不縮, 不深不淺·舌小縮, 聲深·舌縮”대로 일단 ‘이-전설 고모음’, ‘으-중설 중모음’, ‘으-후설 저모음’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15세기 한국어의 모음을 반영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다.

계적으로 파악한 것은 서양 언어학에서는 20세기에 들어와서 구조주의 언어학이 도입된 이후의 일이다. 주로 프라그 언어학파에 의하여提起된 음운의 대립적 인식과 체계적 파악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음운이론으로 인정하고 있다.

훈민정음에서는 초성과 중성, 종성이 변별적 자질로 구성되었음을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성자의 기본자 셋은 ‘聲深·舌縮(으), 不深不淺·舌小縮(으), 聲淺·舌不縮(이)’의 자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현대 음성학적 지식으로 보면 이들은 각기 조음위치 자질과 조음방식 자질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聲深, 不深不淺, 聲淺’은 ‘후설, 중설, 전설’의 조음위치를 말하고, ‘舌縮, 舌小縮, 舌不縮’은 개구도, 또는 혀의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저모음, 중모음, 고모음’을 나탄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순자질(口脣)과 평순자질(口張)을 구별했을 뿐 아니라 闔(오, 우, 요, 유)과 關(아, 어, 야, 여)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입술모양 자질은 ‘으, 으, 이’의 기본음에서는 무관자질임을 밝혀 자질계층적인 인식도 보인다.

음소가 변별적 자질의 집합이라는 개념은 20세기 후반의 SPE(1968)에서 정설로 굳어진 것이며 변별적 자질의 계층적 이해는 非單線音韻論(non-linear phonology)이 등장한 이후의 일이다. 특히 훈민정음 예의의 ‘終聲復用初聲’이 단선적인 음운인식이라면 ‘八終聲可足用’에서의 중성 인식은 음절초 자음(on-set)과 음절말 자음(coda)을 구별하여 인식한 것으로 非單線的(non-linear)인 음운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설명을 훈민정음의 방점표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미 정연찬(1976)을 비롯하여 김완진(1972) 등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훈민정음에서는 당시 한 국어는 聲調語였으며 이 언어에는 고조(high tone=去聲), 저조(low tone=平聲), 그리고 상승조(low-rising tone=上昇調)의 세 성조가 있었고 이들은 분절음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층위에서 성조변동을 하였으며 이러한 성조의 변화를 각각 방점으로 표기하였다. 이러한 방점표기는 이상억(1977, 1978)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율(립)분절음운론(autosegmental phonology)의 방법에 의하여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4. 결어

지금까지 한국어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적인 한국어의 연구는 모두가 한국어학인가? 아니면 서양언어학에 입각한 한국어의 연구만 한국어학으로 인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선 한국어의 과학적인 연구를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시켜 살펴보면 당시의 한국어에 대한 관찰과 체계적 파악이 오늘날의 첨단적인 서양 언어학 이론에 의거한 것에 못지않은 이론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양언어학에서 새로운 언어 이론이 발견되면 될 수록 훈민정음의 문자제정과 관련된 여러 음운이해의 방법을 보다 정밀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시 말하면 15세기의 세종대왕과 集賢殿 학자들의 음운에 대한 記述 및 그에 의거한 문자의 제정은 오늘날의 변별적 자질이론이라든지 구조음운론의 대립적인 음운 인식과 체계적인 음운 파악에 의해서, 그리고 비단선적인 음운 이론으로 설명되어야 제대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고에서는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서양언어학의 이론에 입각한 것만이 한국어학으로 보려는 생각은 적지 않은 문제가 있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과학적인 언어 연구를 다만 서양언어학의 이론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어의 연구사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개화기 이후 서양언어학이 도입된 이후의 한국어 연구에서 1960년대까지는 비교적 다양한 서양의 언어이론이 한국어의 연구에서 이용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의 한국어 연구에서는 거의 미국언어학의 이론만이 한국어 연구에 도입되었다. 미국언어학의 역사는 미국에서의 다른 인문학과 같이 내우외환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연구사적인 언어이론의 이해도 매우 소극적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몇 가지 예를 들어 연구사적인 언어이론의 이해가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또 미국 언어학으로의 偏向的인 의존은 종전의 한국어 연구에서 추구했던 다양한 언어학 이론의 탐색을 매우 위축시켰고 여러 분야에서 균형 잡힌 연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半世紀가 넘게 지속된 엄격한 냉전의 체제 속에

서 동구라파의 언어 연구방법, 특히 제정러시아나 구소련에서의 역사언어학 방법과 알타이제어에 대한 연구가 한국어학계에 소개되지 못한 것은 한국어의 역사적 연구와 계통적인 비교연구를 위해서 매우 애석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앞으로도 이 방면의 연구가 별로 희망적이지 못한 것은 한국어의 역사가 인구어와 같이 자세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인용문헌

- 강신항. <국어학사>, 보성문화사, 서울, 1979.
- 고영근. <국어학 연구사>, 학연사, 서울, 1985.
- 김민수. <신국어학사>, 一潮閣, 서울: 全訂重版(1990), 1964.
- 김병제. <조선어학사>,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평양, 1984.
- 김영항. <조선어학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평양, 1996.
- 김완진. <중세국어의 성조연구>, 한국문화연구소, 서울, 1972.
- 羅常培·蔡美彪. <八思巴字与元代漢語>. 科學出版社, 北京, 1959.
- 방중현. <훈민정음통사>, 一成堂書店, 서울, 1948.
- 유창균. <국어학사>, 영문사, 대구, 1959.
- 유창균·강신항. <국어학사>(국어국문학강좌), 민중서관, 서울, 1961.
- 이상억. “自立分節音韻論과 國語”, <국어국문학논총>, 탑출판사, 1977.
- 이상억. *Middle Korean Tonology*, Ph.D. dissertation, Univ. of Illinois at Urbana, 翰信文化社, 1978.
- 이승녕. “국어학사”, <思想界>, 34-41호(1956, 5.~1957, 1.), 1956.
- 정연찬. <국어성조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출판부, 서울(1977: 탑출판사), 1976.
- 조선어학과. <조선어학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평양, 1989.
- 줄고 “훈민정음 중성자의 음운대립”,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 2002.
- 줄저. <역학서 연구>, J&C, 서울, 2002.
- 홍기문. <正音發達史> 상·하, 서울신문 출판국, 서울, 1946.
- Arnauld & Lancelot(1660). A. Arnauld and C. Lancelot; *Grammaire générale et raisonnée*, Paris. reprinted Scolar Press, Menton, 1967.
- Chomsky(1965). Noam Chomsky; *Current issues in linguistic theory*, The Hague.

- Chomsky(1966). N. Chomsky; *Cartesian Linguistics*, Harper & Row, N.Y. & London.
- Goldsmith(1976). John Goldsmith; *Autosegmental Phonology*, MIT Ph. D. dissertation, Garland Press(1979).
- Helbig(1970). Gerhard Helbig; *Geschichte der neueren Sprachwissenschaft—Unter dem besonderen Aspekt der Grammatik—theorie*, Leipzig.
- 한국어역 임환재 역. <言語學史>, 經文社, 서울, 1984.
- Ivič. Milka Ivič; Translated by M. Heppel, *Trends in Linguistics*, The Hague, 1965.
- 한국어역 김방한 역. <언어학사>, 형설출판사, 서울, 1982.
- Ogden & Richards. C. E. Ogden & I. A. Richards; *The Meaning of Meaning*, Kegan Paul, London, 1923.
- Pedersen. *Linguistic Science in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Mass, 1931.
- SPE. N. Chomsky;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Harper & Row, New York, 1968.
- Thomsen. Vilhelm L. P. Thomsen; *Sprogvidenskabens historie, En kortfattet fremstilling af dens hovedpunkter*, 1902년 코펜하겐대학 기념논문집에 수록된 것을 1919년 이후에 톨센의 전집(*Samlede Afhandlinger*)에 수록한 것임, 1919.
- 독일어역 Hans Pollak. *Geschichte der Sprachwissenschaft bis zum Ausgang des 19. Jahrhunderts*, Übersetzt von Hans Pollak, 1927.
- 일본어역 泉井久之助・高谷信一. <言語學史>, 弘文堂, 동경, 1953.

[Abstract]

**The Linguistic Methodology of Korean Linguistics :
based on the comprehension of the historical inquiry**

Kwang Chung
(Korea University)

In this paper I have considered the subject related with 'the identity of Korean linguistics.' When I have pondered upon the subject I found that all the researches should not be regarded as a part of Korean linguistics only because they followed the scientific methodology. Moreover, it isn't right to accept any of the studies of Korean linguistics only because they relied on the tenet of western linguistic methodology. Although till 1960's various western linguistic methods were introduced to Korean scholars and applied to account for Korean language, abruptly, since 1970's, most theories have inclined to follow tendency of American linguistic trend. Pupils who want to study modern linguistic theories prefer to study at the universities of America rather than other countries in Europe. However, it is necessary to know that the history of American linguistics isn't really as long as that of European nations and that the humanities has developed for a long time since the Greek period. If we attempt to contemplate the procedure of the invention of Korean alphabetic system (Hun-Min-Jung-Um) it will be easy to find the fact that the theoretic approaches used to observe and analyze Korean language in 15th century are as good as the most up-to-date theories which have been introduced recently. Therefore, I tried to show that the historical awareness of linguistic theories deserves special emphasis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Korean linguistics correctly.